

# 초·중·고 학생선수 공부해야 대회 나간다

### 결석 허용일수 10일씩 줄이고 특기생 입시·내신 비중은 높여 폭력·비위 지도자 자격 정지

학생선수들이 대회나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수업에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결석 허용 일수를 줄이고,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은 높인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과 체육특기자 전형형을 개편한다. 우선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내년 10일까지 감축한다. 올해는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해도 초등학교는 20일, 중

학교는 30일, 고교는 4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했지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교 30일로 줄인다.

과거에는 사실상 학생선수의 대회나 훈련 참가에 대한 제한이 따르지 않았다. 2016년 이른바 '정유라 입학 특혜 사건'이 터지면서 수업일수(190일) 3분의 1(63일)까지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제한했다가 올해는 더 줄였다. 2021년 이후 결석 허용일수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개최되는 대회를 주말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 대상 경기 대회의 51% 수준인 주중 대회 비중을 2022년까지 43%로 줄이기로 했다. 주말 대회로 전환하면 정부가 대회 비용을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

도 학교체육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은 해당 과목의 학년평균을 기준으로 초등은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교는 30%이다.

고교·대학 입시에서 체육특기자 전형도 개선한다. 경기대회 입상 실적이 중심인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해 교과 성적과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는 현재 30% 안팎인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고입부터 적용한다.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대신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지금도 서울·경기·인천·충남 교육청은 고입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

대입 특기자전형에서도 교과 성적과 출결, 경기 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 8월에 발표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적용된다.

한편, 그동안 체육지도자 자격증 없이도 대한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규정은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변경된다.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이 정지된다.

또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내년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징계 전 면직 처리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동강대 박서진 교수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사진)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카디오바스큘러 너싱(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에 게재된다.

박서진 교수의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에게 적용된 운동요법에 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임상적 효과를 메타 분석한 논문이 '저널 오브 카디오바스큘러 너싱' 2021년 1/2월호에 실린다.

'저널 오브 카디오바스큘러 너싱'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1.675로 JCR기준 간호학 분야 상위 10%에 랭크된 저널이다.

박 교수는 이번 논문 외에도 주 연구분야인 만성 질환과 관련해 다수의 연구를 저널에 게재했다. 박서진 교수는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동강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도서관이 우리 집 속으로'

### 초당대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무료배달 서비스

초당대학교(총장 박종구) 중앙도서관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도서관 소장도서 대출 무료배달 서비스인 '도서관이 우리 집 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을 비대면 재택수업에 따른 학교 등교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지원을 보다 다양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됐다.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소장 도서를 대출 신청하면, 학생이 원하는 곳으로 택배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학생의 개별 취향을 분석하여 추천 도서

를 자동으로 해주는 큐레이션(Curation) 대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대출과 반납에 따른 비용은 모두 학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김혜숙 도서관장은 "재택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이 도서관에 오지 못하면, 도서관의 책과 전자책은 학생 옆으로 갈 수 있다는 신박한 생각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 나주 세지중 교사·학부모 연수

호남권 최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인 조선대학교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이 최근 SW교육 선도학교인 나주 세지중학교에서 'SW교육 선도학교 AI·SW 교사 및 학부모연수'를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조선대 제공)

### 광주시교육청, 2020 국민신문고 제안 운영 우수

광주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국민신문고 제안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전체 행정기관의 제안제도 적정 운영과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국민·공무원 제안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시 교육청은 접수 완료율과 심사기간 준수율, 제안 채택률 등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교육청은 2019년에도 국민권익위 운영실태 점검 결과 교육청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행안부장관상)으로 선정돼 제안 활성화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온라인 출판기념회 진행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 출판기념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출판기념회에서는 교사 저자 발굴 프로젝트인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 사업을 통해 발간된 도서와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는 '마을 발견' (송경애), '브레멘의 동물 음악대는 정말 음악대가 되었을까?' (유미 외 1인), '전라도 말의 뿌리' (위평량), '수업나눔 워크북, 교사의 성장을 꽃피우다' (이세희 외 6인), '온오프 영어수업' (정미리 외 7인), '학교야, 체육하자' (김성민 외 4인), '함께 만드는 학교 공간 이야기' (고은석 외 4인), '아슬슬의 쓸쓸한 영화 수업' (김아슬), '단군은 정말?' (박용준) 등 총 9권의 도서가 발간됐다.

교사 저자 발굴 프로젝트 사업에 의해 지난해 출간된 '교사, 자치로 깨어나다' (김경희 외 9인)와 '생태인문교실' (서혜리)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 NEXT

##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을 재밌게 읽는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읽게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새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빨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카이어 시선  
강대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등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정영주 시집